



내수·수출 탄력 완성차, 공장 가동률 100% 이상 풀액셀

현대차, 울산공장 가동률 113% 튀르키예 115%, 체코 103% 가동기아, 국내 공장 가동률 107.3% 美 조지아주 공장도 102% 달해 한국지엠, 창원 가동률 확보 만전

은 48만2326대를 생산해 공장 가동률 112.9%를 기록했다. 현대차의 첫 해외 생산기지인 튀르키예 공장은 1분기 생산 대수가 6만2600대로 가동률은 114.9%에 육박했다. 현대차 체코 공장과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소재 공장 가동률도 각각 103.4%, 101.3%에 달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해외 공장 가동률을 80~90%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내수·수출 증가로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적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에 시달리며 생산 및 판매 감소를 겪었던 완성차 업체가 안정세를 되찾는 분위기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 가동률을 확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울산공장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생산 거점에서의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의 경우 올해 1분기 원래 생산능력(42만7091대)보다 더 많

기아도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아 국내 공장 가동률은 107.3%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5%p 상승했다. 미국 조지아주 공장도 생산 능력(9만1000대)을 넘는 생산량(9만2730대)으로 101.9% 가동률을 기록했다. 기아 슬로바키아공장과 인도 공장 가동률은 각각 99.3%, 97.3%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외부 악재로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수요가 공급을 앞서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 공급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잔업과 특근 등을 통한 생산 물량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도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부평공장서 트레일블레이저와 앙코르 GX를 생산하고 있으며 창원공장에서는 트랙크로스오버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지엠이 부평공장의 주력



손 잡은 韓-캐나다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 확대 회담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모델인 트레일블레이저를 올해 1분기 5만9198대 수출했다. 특히 트레일블레이저(뷰익 앙코르 GX 포함)는 3월 한 달간 총 2만 5491대가 해외 시장에 판매되며 전년 동월 대비 101.9%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트랙크로스오버의 생산에 돌입한 창원 공장은 올 상반기 100%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창원공장은 지난해 10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생산 설비 공사를 진행해 올해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

갔다. 현재 창원공장은 가동 초기 생산 품질을 높이고 공정별 밸런스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초 창원공장으로 전환배치된 부평2공장 인력 600여명도 숙련공이지만 차종이 바뀌면서 라인 속도를 정상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원공장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최대 60대인데 가동 초기인 만큼 현재 40대 선으로, 월 생산대수는 1만6000여대 수준으로 최대 생산량인 2만5000대에 못 미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창원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가동률 100%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원 공장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주말 특근과 특별연장근무를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보릿고개’... 1분기 순익·영업익 반토막

622개 상장사 순익 18.8조, 58% ↓ 코스닥 상장사도 절반 이상 적자

(12월 결산법인 2023년 1분기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1~3월	2023년 1~3월	증감률	2022년 1~3월	2023년 1~3월	증감률
매출액	3,724,794	3,660,040	△1.74	6,598,119	6,973,744	5.69
영업이익	279,316	61,513	△77.98	532,592	251,657	△52.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89,685	206,366	△47.04	578,368	260,682	△54.93
순이익	297,420	192,551	△35.26	445,203	188,424	△57.68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 이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수준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들 역시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이 모두 악화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수출·내수 동시 위축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순이익 반토막... 금융업은 개선

17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622개 상장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18조842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68%(25조6779억 원) 줄어 들었다. 연결 매출액은 697조

3744억 원으로 5.6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5조1657억 원으로 52.75% 줄어 들었다. 결과적으로 순이익과 영업이익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이다.

연결 매출액 비중이 9.14% 선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 상장사의 1

분기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8.87% 늘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7.34%, 47.98%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은 63조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124.56%), 기계(73.64%) 등 5개 업종에서 영업이익

이 증가했다. 반면, 운수장고(-60.37%), 철강금속(-55.89%) 등 12개 업종에서 영업이익 감소를 나타냈다. 금융업은 연결기준 금융업 42사의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9.57%, 10.94% 오르면서 실적이 개선됐다.

◆코스닥도 절반 적자

연결 기준 코스닥 상장사 역시 올해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매출액은 45조2050억 원(2.7%)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조9746억 원(45.0%), 2조7265억 원(20.8%)으로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 1402개사 중 41.9%(58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에서 제조업이 10.0% 증가하고, IT가 10.1% 감소하는

등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인 약세가 드러났다. 운송장비·부품(자동차 등)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149.8% 증가하면서 제조업 중 우수한 실적을 실현했다. 반면, 반도체, IT부품 제조 중심의 IT 하드웨어 업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16.0%, 76.1% 감소하면서 IT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실적 부진... 하반기 만회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실적이 2분기에 더 나빠져 상장사 전체 실적에 영향줄 것”이라며 “자동차 기업 실적도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민주 “강철원, 인허가 비리 연루... 서울시 정무부시장 임명 철회해야”
▲ 공군 블랙이글스,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 참가 위해 이륙 /사진 뉴시스

▲ ‘법 위에 법’?... 공무원 노조 등 37% ‘불법’ 단체협약
▲ 국민의힘 경남도당·경남도, 서울서 예 산정책협의회 개최



▲ 홍준표 “민주당은 부패... 국민의힘은 무능·무기력”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 /사진 뉴시스